다양한 이미지와 낯선 음악 4시간 40분 꼼짝 못한 몰입

23~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공연된 '해변의 아인슈타인' 〈예술극장 제공〉

亞문화전당 예술극장 무대 로버트 윌슨 연출 '해변의 아인슈타인'

1976년 초연 이후 20세기 세계 공연계 뒤흔든 작품

윌슨 "고정관념은 없다, 수많은 상징 해석은 관객 몫"

'20세기 세계 공연 예술계를 뒤흔든 작품.'

1976년 초연 당시, 기존 공연 예술의 형식을 파괴하며 충격을 던진 로버트 윌슨 , 〈사진〉연출의 '해변의 아인슈타인'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아워 마스터'를 통해 관객들을 만났다.

특별한 스토리 없는 이미지 위주의 구성, 지루할 수도 있는 계속적인 반복과 느림, 인터미션 없는 4시간 40분의 공연 시간, 익숙하지 않은 현대음악. 요즘 관객들에겐 만만찮은 요소들로 구성된 작품은 분명 '버겁기는' 했지만 관객 개개인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해석을 유도하며 작품 속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23일 공연 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로버트 윌슨은 "이 작품에는 특별한 줄거리나 메시지가 없다. 수많은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는 건 관객의 몫이다. 하나의 고정된 의미가 아닌, 수많은 상징으로 뻗어나가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말도 덧붙였다. "노을을 바라볼 때 거기서 '이야기'를 찾는 사람'은 없다. 점차 붉어지는 색깔, 시간이 흐르며 변해가는 모습 그 자체를 경험하는 거다. 현대 회화나 무용을 접할 때 '스토리'에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연극과 오페라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오히려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다."

공연장에 들어서면 검은 막 앞 흰 조명을 받는 곳에 두명의 여자가 보인다. 그들은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손가락으로 타자 치는 시늉을 한다. 작품의 시작이다. 4막과 3번의 막간극으로 구성된 작품은 아인슈타인이 그 중요성을 역설했던

기차를 비롯해 비행선, 법정 등 다양한 무대를 배경으로 전개되며 아인슈타인과 관련된 스토리를 들려주는 대신 그를 상징하는다양한 이미지를 던진다.

로버트 윌슨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라고 이야기 한 것처럼, 공연 속에서 빛은 다양하게 변주되며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미술을 전공한 그는 조명을 직접 디자인했고 조명을 하나의 세트처럼 활용해 풍성한 볼거리를 만들어낸다.

오케스트라 박스와 무대 위를 오고가며 노래하는 10명의 코러스, 꽉 짜인 음악을 들려준 5명의 연주자가 만들어낸 음악은 일부 난해하기도 하지만 의외로 감성을 자극한다. '원 투 스리 포', '도레미파솔' 등 숫자와 음계만으로 만들어내는 음악, 낮은 목소리로 반복해서 내뱉는 의미 없는 대사가 감동을 전하는 묘한 경험도 하게 된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암흑 속에서, 오르간 연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평으로 누워 있던 빛이 수직으로 변하는 과정을 10여분 넘게 '느리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또 마지막 4막 3장과 다섯번째 막간극은 감정이 폭발하고, 해소되는 경험을 갖게 해준다. 3단, 15칸으로 구획된 화려한 네온 빛 공간 속에 들어간 연주자들과 무용수, 소년과 소녀를 싣고 상하 좌우로 리듬있게 움직이는 투명 엘리베이터, 첫장면과 반복된 몸짓을 되풀이하는 퍼포머, '원자폭탄'의 이미지를 투영한 투명막, '사랑' 대한 의미를 묻는 마지막의 대사까지.

반복된 동작, 반복된 음계,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이미지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관객들은 점차 몰입하게 된다. 차곡차곡 쌓은 레고 조각들이 나중에 근사한 건물로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이다.

이 공연은 자유롭게 입퇴장이 가능했다. 중간에 자리를 뜬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공연 후에는 기립박수와 환호성이 터졌다.

해석은 관객들의 몫이다. 굳이 어떤 의미와 해석을 찾지 않더라도, 다양한 이미지와 낯선 음악 속에 머물렀던 4시간 40분은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행운이었다.

윌슨의 말처럼 해석은 관객들의 몫이다. 하지만 굳이 어떤 의미와 해석을 찾지 않더라도, 다양한 이미지와 낯선 음악 속에 머물렀던 4시간 40분은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행운이었다. 윌슨은 '법정 장면'의 경우, 인류를 사랑하는 평화주의자였지만 결국은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이용돼 버린 아인슈타인의 이상이 심판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작품은 보고 나면 끊임 없는 궁금증이 일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진다. 그런 점에서 리플렛 등 공연과 관련된 자료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윌슨은 "아방가르드는 결국 클래식의 재발견이다. 클래식은 길이 남는 것이다. 새로운 세대가 자신만의 시각을 갖고 재해석하고 재발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연 예술계가 귀담아 들어야할 말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금속·나무·종이…광주 공예품 정수 한자리에

광주시 공예명장전 28일까지 원갤러리

광주 공예명장 8명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다.

광주광역시공예명장회(회장 오석심)는 28일까지 원갤러리에서 '2015 광주광역시 공예명장전'을 연다. 공예명장은 공예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술숙련도, 작품수준 등을 심사해 매년 3명 내외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고경주(금속)·박영기(목공예)·손동진(도자)·신경식(금속)·오석심(종이)·정종구(목공예)·최석현(나전칠기)·한경희(종이) 등 광주시가 지정한 공예명장 8명 모두가 참여해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또 광주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명장 기영락(목공예) 우디스 대표와 송현경(자수공예) 수향한국전통자수연구소 대표의 작품도 출품된다.

공예명장과의 만남도 진행된다. 27일 한경희씨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관람객 앞에서 작품 제작 시연을 하며 공예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문의 062-222-6547. /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석심 작 '황금열매'

박수영 독주회…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연주

26일·내달 5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박수영〈사진〉씨는 부지런한 연주자다. 매년 독주회를 갖고 다양한 작품들을 공연해왔다.

23번째 독주회를 맞은 박씨가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전곡 시리즈에 나선다. 베토벤의 협주곡 5곡을 이틀에 나눠 선보이는 기획이다. 혼자서 연주하는 소나타 전곡 연주와는 달리,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협주곡은 피아니스트로서 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첫 번째 연주는 26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연주곡은 당시 일반적인 피아노협주곡보다 대규모로 구성, 베토벤이 '대협주곡'이라 칭한 1번을 비롯해 아름다운 선율과 단아함이 돋보이는 2번을 연주한다. 또 베토벤이 귓병을 앓기 시작한 즈음에 작곡한 곡으로 그의

협주곡 중 유일한 단조곡인 3번을 들려준다.

다음 연주는 오는 11월 5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연주 곡목은 베토벤 피아노협주곡의 대명사로 꼽히는 5번 '황제'와 4번이다.

협연은 우크라이나 르보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맡는다. 지휘는 광신대 교수 변욱씨다.

전남대와 이화여대 대학원을 거쳐 프랑스 인터내셔널 콘서바토리에서 수학한 박씨는 도쿄프라임심포니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으며 CN피아노 회원으로 활동하며 호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문의 010-4508-99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현대음악 작곡 동인 '뮤직노마드'

내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연주회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현대 음악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열린다.

현대 음악 작곡 동인 '뮤직노마드'(회장 정현수 전남대 교수·사진)가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27일 오후 7시30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Music Today 2015 현대 창작음악 연주회'를 주제로 기획된 이번 공연에서는 박희은 씨가 작곡한 성악곡 '벼랑끝 소나무'(박성경·김선 연주), 고병선씨가 작곡한 퍼커션(신범수 연주)곡 's lucky thought' 한경진(전남대 교수)씨가 작곡한 'Motions and lines Ⅶ for violin and chello'(이종만, 김민수 연주), 정현수(전남대 교수)씨의 성악과 퍼커션 곡 'Extremely Grey'(이승희·신범수 연주) 등이 선보인다.

'뮤직 노마드'는 광주 호남권에서 현대음악을 창작하고 가르치는 작곡 동인들의 모임으로 지난 2009년 구성돼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2-511-19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학권력 논란' 문학동네

대표·편집위원 퇴진…새대표 염현숙

신경숙 표절 의혹으로 촉발되었던 문학권력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출판사 문학동네의 강태형 대표이사와 계간 '문학동네' 1기 편집위원 6명의 퇴진이 공식 결정됐다.

문학동네 관계자는 25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난 24일 진행된 주주총회에서 주주 투표에 따라 강 대표가 물러나고 염현숙 현 이사가 차기 대표에 오르는 것으로 공식 결정됐다"고 밝혔다.

차기 대표는 3년 임기를 3차례 연장해 최장 12년간 대표를 역임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남진우·류보선·서영채·신수정·이문재·황종연 등 '문학동네' 1기 편집위원도 다음달 발행되는 2015년 겨울호를 끝으로 계간지에서 손을 떼기로 했으며, 현재 주간인 차미령 평론가도 개인 사유로 편집위원 사퇴를 밝혀 모두 7명이 물러나게 됐다"며 "차기 운영과 쇄신은 남은 2기 편집위원의 손에 달렸다"고 밝혔다.

1기 편집위원들은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소회와 현재 한국 문단에 대한 생각 등을 공유한 좌담을 이번 겨울호에 실을 예정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연합뉴스